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44호 1판 (음력 10월 26일)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전남지사 선거 '인물 대 정당' 구도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 이개호, 높은 당 지지율 속 당내 독주

내년에 치러질 전남지사 선거는 낙후된 전남 발전을 이끌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됐던 예산과 인사의 균형을 맞추고, 미래발전을 가져올 적임자를 선출해야한다는 게 지역민의 여론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주승용 의원도 최근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란을 비롯 당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부한 정치경륜을 지닌 3~4선의 중진급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인물론 vs 정당'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행정 관료 출신인 이개호 국회의원이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선 출마의 뜻을 일찌감치 밝힌 박지원 전 대표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부터 전남 22개 시·군의 읍·면 향우회 행사까지 참석하는 등 바닥민심을 훑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유동적이지만, 어떤 구도에서도 완승하겠다는 목표와 정치인생의 마지막 과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 국회의원인 박 전 대표는 풍부한 정치경륜과 막강한 중앙정치 인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 두 차례의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청와대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 등을 두루 섭렵한 화려한 '정치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전남지사는 행정만을 우선하는 게 아닌, 정치적 고비마다 균형발전과 균형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낙후한 전남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풍부한 정치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주승용 의원도 최근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전남지사 도전이 세 번째인 만큼 '설욕'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박지원 전 대표와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출마의 뜻을 밝힌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경선이라는 예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해 출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만큼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원(재선)과 여천군수, 여수시장,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부터 중앙정치까지 두루 경험한 것이 장점이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와 국회에서도 주요 직책을 지내는 등 풍부한 경륜을 지녔다는 평가다.

또한, 전남지사 선거 경선에 두 차례 도전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 강점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라는 점과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및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전남도 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여수 부시장 등 각 부서와 지자체 부단체장을 두루 경험한데다,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정치권에 입문함으로써 사실상 인생의 절반을 전남도와 함께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속에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 자신의 지역구인 담양·장성·영광·함평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래치기' 고기 잡이 12일 강진군 병영면 하고저수지에서 지역 농민들이 '가래치기' 방식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대나무로 제작된 원뿔형 도구인 '가래'를 물속에 넣어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과거부터 농사가 마무리되는 겨울 저수지의 물을 뺀 뒤 가래치기로 물고기를 잡아 잔치를 벌여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특별법 국방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연내 국회 통과 기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13일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국회 표결 등 남은 관문이 여럿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안 제정에 사활을 걸고 바른정당·정의당 역시 협조적인데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하는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이어서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소위에 넘겨진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대안 의결처리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때 자유한국당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어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통과 불발이 예상됐으나, 난항 끝에 한국당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자료 등 물건)을 청구의뢰시 지방검찰청이 응하도록 한 조항이 빠졌고,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 실무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 설치 조항 등이 삭제됐으나 큰틀의 변화는 없었다.

소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안은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명령체계)·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 이른바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금껏 5·18 관련 피해자·희생자 보상, 유공자 예우, 전두환·노태우씨 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된 바 있으나 5·18진상규명만을 위한 법안은 신군부의 5·18유혈진압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낮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명령체계)·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 이른바 5·18 핵심의혹은 지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2006년 군과거사위 조사, 1995년 12·12 및 5·18 사건 검찰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 단계인 법사위 심사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진다"면서 "한국당 측이 당론을 정해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518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점에 미뤄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암 종오리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영암 종오리(씨오리)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6형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2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된 영암 종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이 나온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 이어 두 번째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확진(순천 1건, 제주 2건)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다.

농식품부는 선제 조치로 고병원성 확진 이전인 지난 11일 0시부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영암·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 및 출입이 통제되고, 사육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유통이 금지됐다.

전남도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영암 농가에서 최근 한 달새 나주(1곳)·영암(9곳) 10개 농장에 새끼오리 18만5000마리가 분양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발생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영암 농장 오리 1만2000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3㎞ 내 오리농가 5곳, 7만6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가동

호남 최고의 정론지 광주일보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을 구성, 가동합니다.

광주일보 특별취재팀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이번 선거 기간동안 지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지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채롭고 참신한 선거 기획기사를 제공하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문화 및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취재팀 명단

▲본사 팀장=최권일 정치부 부장
팀원=박정욱 차장(전남본부), 오광록 차장(정치부), 김용희 기자, 김한영 기자(이상 사회부)
▲서울팀장=박지경 서울 취재 부장
팀원= 김형호 기자
▲사진팀장=나명주 부장
팀원=최현배 부장, 김진수 기자

光州日報社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 공모 내일 마감
(14일자 소인 유효합니다)

청정바다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고장!
GSeaWeeds!
완도군 WANDO COUNTY 농수산 온라인 특산품관
완도군이숍
전국 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엄선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포털 사이트에서 완도군이숍 을 쳐보세요! 또는?
http://www.wandoguneshop.com
문의전화 : 061)550-5573~5574